

타이완산 EVA 반덤핑 재심사

무역위, 가격인상 약속 톤당 820달러 어거 덤핑판매 지속

무역위원회(위원장 전성철)는 2002년 3월28일 제171차 회의를 개최하고 남원무역(대표 김형태)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해 과징금 4500만원과 함께 범 위반사실 공표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심의·의결하고, 타이완산 EVA(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Emulsion 타입) 가격인상 약속 연장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가격인상 약속을 이행중인 타이완산 EVA가 현재도 덤핑이 지속되고 있어 가격인상 약속이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가격인상 약속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VA 가격인상 약속 내용은 1997년 8월5일부터 2002년 8월4일까지 5년간 톤당 최저가격을 820달러로 수출한다는 것이다. 가격인상 약속 이전 가격 758달러 8.2% 인상된 가격이다.

무역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재정경제부에 통보돼 최종 확정되면, 6개월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가격인상 약속기간 연장 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VA 국내시장은 2001년 기준 227억원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은 국내 생산제품이 69.8%(158억원), 수입제품은 30.2%(68억원)이다.

EVA는 초산비닐에 물과 유화제 및 에틸렌을 첨가해 고압에서 중압 반응시켜 생산되는 수성접착제 중간원료로 PVC 필름접착제, 건축용 방수제 및 일반 접착제 등에 사용된다.

EVA 수급현황

(단위: M/T, 100만원, %)

구분		1998	1999		2000		2001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국내수요		물량	10,800	16,200	50.0	18,000	11.1	21,542	19.6
		금액(A)	11,503	17,347	5.1	18,789	8.3	22,706	20.8
공급	수입	물량	883	2,594	193.8	4,073	57.0	6,845	68.1
		금액	951	2,804	194.8	4,318	54.0	6,849	58.6
	국산	물량	9,917	13,606	37.2	13,927	2.4	14,697	5.5
		금액(B)	10,552	14,543	37.8	14,471	45.0	15,857	9.6
국산품 점유율(B/A)		92.0	83.8		77.0		69.8		

국내에서는 Air Products & Chemicals Korea가 생산하고 있고, 수입은 대유켄, OCI상사, 삼영무역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수요자는 한석화학, 성아상사, 오곰, 대흥화학, 태림산업, 대진화학, 삼성신역 등이다.

한편, 남원무역은 중국산 마사를 수입해 EU에 단순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2001년 1월 이후 이태리·프랑스·벨기에 등에 18차례 수출했고, 특히 2001년 8월16일 이태리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사실이 적발돼 전량 통관보류조치를 당한 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3차례 수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EU 집행위는 2001년 12월6일 산업자원부에 남원무역의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고, 산자부가 관련서류를 무역위원회로 이첩해 움에 따라 조사를 개시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01>